

『신국론』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신국론』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1.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비판
2.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고백록』에서 『신국론』으로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1.03>

* 이 논문은 2018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ABSTRACT •

Augustine's Social Ethics in *De civitate Dei*

Moon, Si Young, (Namseoul University)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views on Augustine's social ethics, including Niebuhr and Hauerwas, they have failed to pay attention to 'inner reflection' inner reflection. Interestingly, Arendt has claimed the limits of the concept of love through critical reading of Augustine, it paradoxically became a catalyst for the interpretation of Augustine's social ethics. That is because the concept of love is the core of Augustine's inner reflection. Augustine's view that the two loves have made two cities is an expanded application of inner reflection.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 of Augustine's social ethics is the 'social ethics based on inner reflection' which led the pursuit of 'new citizenship' began with *Confessions* to 'heavenly citizenship' of *De civitate Dei*. In this context, Augustine suggests the tasks of having identity of pilgrims, overcoming of splendid vices, and practicing heavenly values in *civitas terrena*. Above all, Augustinian social ethics encourages pilgrims to practice alternatives of honorable poverty and temperance in the age of avarice with the identity of pilgrims.

Key words: Social Ethics, Inner Reflection, Interiority, Pilgrim, *De civitate Dei*, Augustine.

I. 들어가는 말

‘하늘의 시민권’(빌3:20)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렌트(Hannah Arendt)가 말한 것처럼, 결국 ‘무세계성’(worldlessness)에 빠지고 마는 것일까? 예를 들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바울의 강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이 세상’ 혹은 ‘현실’을 정죄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은 일종의 도전일 수 있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¹⁾ 하지만,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을 다루는 것은 자칫 아렌트를 둘러싼 논쟁에 휩쓸리게 하는 것이기 쉽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해석의 문제보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있는가의 논란에 엮일 공산이 크다.

이 글은 아렌트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다양하고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해석의 한 꼭지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가 지닌 특성과 과제를 바르게 풀어내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니버(Reinhold Niebuhr)의 기독교현실주의에 따른 아우구스티누스 해석도 있고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아우구스티누스 읽기도 가능하지만, 굳이 아렌트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다.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독법이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에 관심했다는 점에 착안했다. 사랑 개념이야말로 아우구

1) 익명의 심사자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를 내적 성찰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개인윤리적 접근과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 것은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게 해주는 좋은 조언이다. 이 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가 내적 성찰에 근간한 것임을 입증하면서 내적 성찰과 사회윤리의 통전적 상호보완 필요성을 제시하는 글이라는 점을 독자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스티누스의 내적 성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신국론』에 나타난 사회윤리의 특성과 과제를 바르게 읽어낼 촉매제가 될 듯싶다.

II. 『신국론』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1.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비판

아렌트의 해석이 아우구스티누스 연구에 신학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아렌트의 독창적인 독법이 현대 정치철학으로 성숙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²⁾ 특히, 아렌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연구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작업은 이후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나타난 ‘세계사랑’ 개념의 형성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³⁾ 우리의 관심은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비판적 읽기에 나타난 카리타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를 내적 성찰의 확대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데 있다.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기한 질문은 과연 카리타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가에 관해서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에 대한 아렌트의 독법에는 긍정과 비판이 혼재해 있으며 대부분은 비판적 재평가를 지향한다.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을 분석한 부분은 긍정적인 기여라 할 수 있다.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문젯거리가 되었다’(quaestio mihi factus sum)고 말했던 것을 두고⁴⁾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는 인간실존의

2) 서유경, ‘역자후기’, Hannah Arendt, eds. by Joanna Vecchiarelli and Judith C. Stark, 서유경 역, 『사랑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서울: 텍스트, 2015), 363.

3) 김정숙, ‘기독교 신학적 사유를 통한 한나 아렌트의 세계 사랑의 의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개념과 세계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제175집 (2016), 208.

4) *Confessiones*, X.33.50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한다.⁵⁾ 아우구스티누스를 내적 성찰의 관점에서 읽는 셈이다.

내적 성찰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밖으로’ 나가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뜻에서, 아렌트가 시간성이 인간 실존의 지배적 특성이라고 이해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⁶⁾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성찰에 나타난 시간과 영원의 구분을 제대로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시간과 영원의 구분에는 또한 향유(frui)와 사용(uti)의 개념도 적용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시간적인 것들은 사용의 대상이고 영원의 존재인 하나님은 향유의 대상이다. 카리타스는 ‘사랑의 질서’(ordo amoris)로서, 영원을 향유하고 시간적인 것을 사용하는 사랑이다. 반대의 경우 즉 사랑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쿠피디타스이다. 쿠피디타스 상태에 있는 인간이 카리타스를 통해 참된 행복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점이다.⁷⁾

문제는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법들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읽었다는 점이다.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세상을 시간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아렌트가 보기에, 갈망(craving, appetites)이라고 규정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은 소멸해가는 세계에 속한 시한부 인생이 갈망하는 것들로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⁸⁾ 아렌트의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

5) Hannah Arendt, eds. by Joanna Vecchiarelli and Judith C. Stark, 서유경 역,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서울: 텍스트, 2015), 43.

6) 같은 글, 77.

7) 문시영, ‘고백록 10권의 시점에서 본 탐욕과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34집 (2016), 41~68.

이야말로 세계에 관한 가치부정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병행불가를 말해주는 원인이다.

나아가,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갈망으로서의 사랑 개념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아렌트가 보기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를 결정하는 힘은 인간이라는 주체가 아니라 결국 욕망의 대상에게 귀속된다. 논리적 결합이라는 비판일 듯싶다. 그리고 향유와 사용에 적용된 질서 개념은 하나님과의 상하관계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자아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는 적용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아렌트의 독법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자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위해 부정되어야 하며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병행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가 행복을 영원의 영역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일상 세계의 가치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 세계를 잠시 거쳐 지나가는 장소, 곧 순례자가 영원에 도달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천막 같은 곳으로 상대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아렌트가 말하는 ‘무세계성’ 개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겠다. 요컨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삶에서의 이웃사랑은 세계 없는 사랑, 무세계성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렌트의 비판이다.⁹⁾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다른 길을 찾는다.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부정적이던 ‘세상사랑’(amor mundi)을 적극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천막이나 불모지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평

8) 김정숙, ‘기독교 신학적 사유를 통한 한나 아렌트의 세계 사랑의 의미’, 212.

9) 같은 글, 224. 아렌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순되지 않는 적실성을 보여줄 후보로 기독교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유기체 안에서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아렌트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웃사랑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웃사랑일 뿐, 현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상호사랑이 아니라는 뜻이다.

안한 안식처로서의 세계에 관심해야 하며 책임적이고 공적인 사랑을 통해 만들고 가꾸어야 할 세계를 지향한다.¹⁰⁾ 이러한 뜻에서, 아렌트는 ‘하나님의 도성’은 ‘정치공동체’로, ‘이웃’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시민들 간의 유대감’으로 재해석한다.¹¹⁾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아렌트는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어 자신의 고유한 정치철학으로 발전시킨 셈이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제대로 읽었던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과 각각의 개념 해석에 대한 면밀한 반대가 아니다. 솔직히,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은 당혹스러움을 준다. 어찌 보면, 비판적 재평가라기보다 ‘디스’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에 관심하는 이유는 이 글이 지닌 문제의식 즉 내면성의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를 읽어낼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아렌트의 연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를 사랑 개념에 관한 성찰로부터 접근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 것이 가장 큰 기여라 하겠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고백록』에서 『신국론』으로

1) 『고백록』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민권’

아우구스티누스를 읽을 때, 우리의 동시대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작품들을 읽어내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적 읽기 역시 이러한 우려의 면제대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아렌트가 말하는 ‘세계사랑’ 개념 등은 위기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책임과 배려의 공적 사랑이 절실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10) 같은 글, 230.

11) 서유경, ‘역자후기’, 361.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흥미롭게도,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독법에 의외의 기여가 있다.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룬 향유와 사용, 시간과 영원, 그리고 쿠피디타스와 카리타스의 구분법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본질적인 개념들이다.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가 구조적으로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려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연구에서 사랑 개념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가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반증해주는 셈이다.

사실, 『신국론』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성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전체의 흐름에서 독립된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고백록』(*Confessiones*)과의 연관성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두 책은 각각 가치가 있지만, 『고백록』의 저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신국론』이 ‘교회’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에 관한 성찰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 안에는 『고백록』에서 이어지는 울림이 크게 나타난다. 개인의 도덕적 삶이 사회적 삶과 상호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¹²⁾

특히, 『고백록』의 사랑 개념은 『신국론』의 사랑 개념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고백록』과 『신국론』은 내면성에 대한 관심 즉 내적 성찰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내면성에 대한 관심은 일

12) Peter Brown, 정기문 역, 『아우구스티누스』(서울: 새물결, 2012), 336. 브라운의 이러한 관점을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라인홀드 니버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을 주장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석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백록』의 사랑이 『신국론』의 사랑으로 확장된 연결과정 자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유한 관점이라는 점은 틀림없어 보인다. 니버를 비롯한 해석자들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현대적 적용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되게 유지되는 가장 큰 독특성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했던 내적 성찰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도우시며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¹³⁾ 내면성은 개인의 회심에 있어서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에서도 다르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외의 여러 글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내면성에 대한 관심과 내적 성찰을 권한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대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그대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그대의 본성이 가변적인 것임을 발견하거나 그대 자신도 초월하라.¹⁴⁾ ... 마음속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은가? 멀리 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상실하고 만다. ...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오라. 육체를 벗어나라.¹⁵⁾

이러한 내면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면성 그 자체로 자폐되지 않고 두 가지 개방성을 요청한다는 점이다. 높은 곳과 낮은 곳, 초월과 사회,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개방성이다. 이러한 뜻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있어서 내면성은 폐쇄의 길이 아니라, 회개와 내적 초월의 여정이다.¹⁶⁾ 내재와 초월,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속에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함을 교훈한 셈이다.

내면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두 책이 긴밀하게 연관된다. 『고백록』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적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실존을 찾

13) Philip Cary, *Inner Grace: Augustine in the traditions of Plato and Paul*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reface, vii.

14) *De vera Religione*, 39.72~73.

15) *In Evangelium Ioannis tractatus*, 18.10.

16) 가브리엘레 페를리시/이건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성 체험: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오라,” 『신학전망』 제161집 (2008), 156~160.

아낸다. 이를 바탕으로 『신국론』에서는 내면성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을 경계하면서 내적 성찰에 기초한 사회적 실천을 요청한다. 『고백록』에 나타난 것처럼, 386년 카시치아쿰에서의 리트릿과 회심사건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다. 그것은 지적 회심의 결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며 어떤 사랑의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기 때문이다.¹⁷⁾ 아우구스티누스가 의지하는 바울의 관점에 따라 말하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결단이며,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되는 것을 뜻한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은 새 세대를 사는 ‘새사람’이 된 이후 신앙의 지속적 성숙의 과제와 연관된다. 육신의 노화와 욕망의 노쇠과정과 맞물려 ‘겉사람’이 쇠락해가는 것과 함께 ‘속사람’이 성숙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는 셈이다.¹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두 단계를 거친다. 『고백록』VII권에서 ‘지적 회심’(intellectual conversion)을, VIII권은 도덕적 회심(moral conversion)을 말한다. 지적 회심이란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를 비롯한 여러 지적 유흥들을 극복하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았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그의 삶이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는 옛 생활에 묶인 노예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도덕적 회심이 필요했고,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포함하여 예배를 포함하는 기독교의 예전(liturgy)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도덕까지도 수용했다는 것을 뜻한다.¹⁹⁾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새사람’이자 ‘속사람’이 되는 과정을

17) Miles Hollingsworth, *The Pilgrim City: St. Augustine of Hippo and his Innovation in Political Thought* (T&T Clark International, 2010), 182.

18) 차정식, ‘속사람의 신학적 인간학과 대안적 인성 계발’, 『신약논단』 제18권 1호 (2011), 184.

19) James J. O'Donnell, *Augustine: Confessio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introduction’, x xviii.

보여준다. 복음 안에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다. 세례를 받고 복음에 충실하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예수 이야기(Jesus narrative)를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성품화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을 뜻한다.²⁰⁾ 말하자면, 복음 안에서 ‘새사람’이 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복음의 성품화를 통해 ‘속사람’으로 살아갈 과제가 주어졌다.

『고백록』에서 남겨둔 새사람이자 속사람이 되어야 하는 과제, 즉 인간의 도덕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과제에 대한 관심은²¹⁾ 『신국론』에서 어떤 시민권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지상의 도성에 속한 시민권을 넘어 옛 생활을 청산하게 하는 ‘새로운 시민권’(new citizenship)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²²⁾ 자기 사랑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의 삶으로 전환하여 ‘순례자 도성’(pilgrim city)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가 지닌 특성이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관성과 개체성에 관심했다는 점에서 실존주의자의 면모를 지닌다. 내적 성찰에 기초한 내면성을 특성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성에 자폐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적 성찰을 통해 세상을 향한 실천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moved outward) 사상가였다.²³⁾ ‘안으로 들어가서’, ‘위를 향하고’, 영원의 가치를 발견한 이후

20) Stanley Hauerwas, David Burrell, & Richard Bondi, eds.,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to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32.

21) Eugene TeSelle, *Augustine the Theologian*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70), 191~197.

22) Miles Hollingworth, *The Pilgrim City*, 183.

23) Eugene TeSelle, *Augustine the Theologian*, 349.

에 ‘다시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고백록』에 나타난 내적 성찰의 윤리가 『신국론』에서 내적 성찰을 가진 자의 사회윤리로 확장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나타난 특징이라 하겠다.

2) 『신국론』에서 풀어낸 ‘하늘의 시민권’

(1) 제국 속의 천국살이

『신국론』의 사회윤리가 내면성 혹은 내적 성찰에 대한 관심을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은 사회윤리에 대한 해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했던 ‘시민권’ 개념은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신국론』이 『고백록』에서 제기된 ‘새로운 시민권’에 대한 관심을 ‘하늘의 시민권’ 문제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문학적 병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⁴⁾ 실제로, 『신국론』은 ‘civitas Dei’(하나님의 도성)과 ‘civitas diaboli’(악마의 도성), ‘civitas caelestis’(하늘의 도성)과 ‘civitas terrena’(땅의 도성), ‘civitas aeterna’(영원의 도성)과 ‘civitas temporalis’(시간의 도성), ‘civitas immortalis’(불멸의 도성)과 ‘civitas mortalis’(죽게 될 도성), 그리고 ‘civitas sancta’(거룩한 도성)과 ‘civitas iniqua’(사악한 도성)의 병치를 통해 두 도성의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²⁵⁾

사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병치’를 통해 『신국론』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과감한 시도였다. 『신국론』전체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문학적 병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체를 스물두 권으로 구성하고 그 전반부 열권과 후반부 열두 권을 구분한

24) ‘문학적 병치’는 브라운(Peter Brown)의 관점을 수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25) Johannes van Oort, *Jerusalem and Babylon: A Study of Augustine's City of God and the Source of his Doctrine of the Two Cities* (Leidne · Boston: Brill Publishing, 2013), 116.

것은 로마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으로서의 하나님의 도성을 병치시키는 구조이다. 또한 전반부 열권에서 로마와 기독교를 병치시키는 구조가 이어진다. 그리고 후반부 열두 권은 기독교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구조 역시 문학적 병치에 해당한다.

구조상의 병치 이외에 내용에 있어서의 병치도 중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당시 명성을 얻고 있던 포르피리우스는 기독교를 변방의 소그룹으로 몰아세웠다. 이러한 분위기를 간파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도 포르피리우스의 고전목록들을 대치할 성경이라는 원천이 있음을 설득적으로 제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사를 특권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발흥이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는 공통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로마와 다른 국가들을 병치시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전략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과거를 풍자하면서 로마의 진실을 폭로하고 로마가 탁월한 공동체라기보다 지상의 도성에 속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로마와 기독교를 병치시켜 대비하는 데로 나아간다. 병치시킬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다. 포르피리우스를 비롯한 로마의 철학자들과 지도자들은 로마를 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도성 즉 제국을 이상으로 삼았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도성을 제시한다. 로마가 완전한 도성인 것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야말로 참된 도성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 부분에서, 『고백록』과 『신국론』의 연관성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생긴다. 『고백록』의 앞부분 열권이 이교도의 길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신국론』의 처음 열권도 이교도의 종교관과 도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셈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볼 수 있다. 『고백록』에 나타난 내적 성찰의 흔적들이 『신국론』으로 확장되

는 셈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인간 안에 두 개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²⁶⁾ 두 도성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성을 이룬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자기사랑이 지상의 도성을 이루었고,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이루었다.²⁷⁾

이것은 두 도성의 병치를 두 사랑의 병치로 연관 지어 풀어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랑의 병치는 내적 성찰과 깊이 연관된다. 사랑에 대한 발견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성찰이 도달한 핵심이자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내적 성찰에 관심했던 플라톤이 에로스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것과 같지는 않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리타스를 말하는 과정에서 플라톤이 말하지 않았던 ‘의지’의 중요성에 착안하였고 사랑을 의지의 핵심요소로 상정한다. 플라톤의 에로스와 다른 점은 또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카리타스는 성경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변혁과 은혜에 의한 성화를 말한다.

『신국론』에서 사용된 병치는 덕에 관한 성찰에서 분명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화려한 악덕’(splendida vitia)과 그것을 극복할 참된 덕 사이를 병치시켜 대조한다. 로마의 덕을 참된 것이 아닌 유사한 덕 혹은 화려한 악덕이라고 평가했다는 화려한 악덕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부정적이다. 후대의 ‘사이비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pseudo-Augustinian) 혹은 과격(hyper-Augustinian)의 표현일 듯싶다.²⁸⁾ 분명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교도

26) *De doctrina Christiana*, I. 29~30.

27) *De civitate Dei.*, XIV. 28.

28) Jennifer A. Herdt,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들의 덕을 참된 덕이라기보다 외견상 ‘유사 덕’(quasi-virtue)일 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얻는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병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국론』 초반부의 정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가 겪은 재난을 두고 기독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반론한다. 로마가 재난을 당한 데에는 로마가 스스로 제공한 원인이 있다는 진단인 셈이다. 그것은 기독교 시대가 된 이후에 로마가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정령사상을 버린 탓에 정령들이 진노한 결과로 재난이 닥쳐왔다는 억지에 대한 적극적 호교라 할 수 있다. 기독교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로마 내부의 원인부터 바르게 성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로마의 함락에서는 무너진 것이 돌과 목재였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도덕의 방벽과 궁지였기 때문이다.²⁹⁾

로마의 도덕적 방벽과 궁지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재난이 기독교 탓이 아니라는 점, 특히 로마 내부의 도덕성 문제가 원인이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로마인들이 시민적 덕을 강조하지만, 그 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된다. 영광 그 자체에 집착하여 명예욕과 지배욕에 탐닉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고대 로마의 번영은 차선의 덕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쾌락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대 로마인들은 아우구스티누스 당대의 로마인들에 비해 차선의 덕을 지니고 있었다.³⁰⁾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3.

29) *De civitate Dei*, II.3.

30) *De civitate Dei*, V.15.

하지만, 차선의 덕이라는 것조차도 본질적으로는 ‘거짓 덕’(pseudo-virtue)이다.³¹⁾ ‘지배욕’(libido dominandi)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고 패권을 차지한 것은 지상의 도성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이지만, 그것은 지배를 통한 명예를 추구하려는 것이기에 참된 덕일 수 없다. 로마의 수많은 정복전쟁에 지독한 지배욕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동기가 작용했으며, 정복당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대가로 삼았다.³²⁾

이러한 ‘덕에 대한 재평가(re-evaluation)’를 통해,³³⁾ 아우구스티누스가 의도한 것은 ‘로마니타스’(romanitas)는 참된 것일 수 없으며 로마의 덕(Romana virtus)이란 인간과 사회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로마의 건국에서 드러난 형제살해, 부친살해와 같은 악행을 덕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교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논법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로마인들이 칭송해마지않는 덕이란 차선의 덕도 아니다. 사실상 악덕이다.³⁴⁾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덕을 기독교의 덕과 병치시켜 기독교의 덕을 참된 덕으로 제시한다. 기독교의 덕을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화려한 악덕’으로서의 로마의 덕을 넘어 참된 행복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성찰이 다시 빛을 낸다. 『고백록』에서 보여주었던 내적 성찰은 스스로에게 문젯거리가 된 자신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신국

31) Brian Harding, *Augustine and Roman Virtue*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8), 93.

32) *De civitate Dei*, III, 14, 2.

33) Jean Porter, “Virtue Ethics” Robin Gill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00.

34) *De civitate Dei*, XIX, 25.

론』에서 확대적용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배욕을 채우기 위한 교만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고 은혜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검손’을 덕으로 제시한다. 참된 덕이란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셈이다.³⁵⁾ 말하자면, 덕에 대한 로마의 인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볼 수 있는 ‘visio Dei’ 개념은 이러한 참된 덕을 추구하는 자들이 지향해야 할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성찰에서, 참된 행복이란 영원불변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죽음을 넘어 영생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³⁶⁾ ‘로마’로 상징되는 지상의 도성에서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뵈옵게 되는’ 경지에서러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문학적 병치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할 것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병치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두 도성 사이의 중간지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조되는 두 도성이 심판 전까지 뒤섞여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두 도성 중 하나에 속한다.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도성의 대조를 예루살렘과 바빌론의 대조라고 말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로마는 제2의 바빌론이요 바빌론은 제1의 로마였다.³⁷⁾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여 바빌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귀환을 고대했던 것처럼,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셈이다.

35) Bonnie Kent, ‘Reinventing Augustine’s ethics: the afterlife of City of God’, in ed. by James Wetzel, *Augustine’s City of God: A Cri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33.

36) 이에 관해서는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 덕 윤리』(성남: 북코리아, 2014)를 참고하도록 권한다.

37) Johannes van Oort, *Jerusalem and Babylon*, 96.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간직하고 있던 이상을 ‘제국 속 천국살이’라고 패러디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³⁸⁾ 바빌론 제국 속에서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주소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용어대로 하자면, 제2의 바빌론인 로마의 현실 속에서 대안적 윤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것은 『고백록』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민권의 추구가 『신국론』에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제시되는 과정에서 맞이한 현실인식이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의 현주소가 지상의 도성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이다.

(2) ‘거류민’ (Resident Aliens)³⁹⁾과 순례자 윤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병치의 형식을 취한 것을 두고 회심 이전에 가담했던 마니교의 잔재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선한 신의 도성과 악한 신의 도성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논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빛과 그림자의 관계와도 같다고 해야 할 듯싶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한 흔적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두 도성 사이의 라이벌 관계를 드러낸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원형’(archetype)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⁴⁰⁾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건국신화에서 형제간에 경쟁으로 살인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서 원형적인 동기가

38) 이 표현은 다음 책을 응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Brian Walsh and Sylvia Keesmaat, 홍병룡 역, 『제국과 천국』(서울: IVP, 2016), 307.

39) ‘Resident Aliens’는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Resident Aliens* (Abingdon Press, 2007)에서 응용했다. 우리말로로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번역되었다.

40) Miles Hollingworth, *The Pilgrim City*, 1.

되는 양식을 도출해냈다. 두 종류의 무리가 생겨났고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두 도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를 따라(secundum carnem) 사는 사람들과 성령을 따라(secundum Spiritum) 사는 사람,⁴¹⁾ 육체의 욕구에 따르며 한시적인 것에 집착하는 옛사람(vetus homo)과 은혜에 의해 내적으로 거듭난 새사람(novus homo)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⁴²⁾ 혹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사이의 구분이다.⁴³⁾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육체에 의해 살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는 삶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질송(Étienne H. Gilson)이 적절하게 말했듯이,⁴⁴⁾ ‘은혜를 받아 내면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점차 현세적인 삶을 대체하는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점이다.

새사람의 특성은 내적 성찰로서의 사랑 개념의 확대적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향유와 사용의 관계이다. 목적으로 누리는 사랑으로서의 향유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랑으로서의 사용에 관한 내적 성찰이 두 도성의 구분에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부분에서,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에서 갈망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설명과정에 사용과 향유의 개념이 중요한 결함을 낳는다고 보았으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향유와 사용의 개념은 배타적 차별을 위한 권위적 질서를 전제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두 도성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41) *De civitate Dei.*, XIV.1., XIV.4.

42) *De vera Religione*, 26., 29.

43) *De civitate Dei.*, XV.1.

44) Étienne H. Gilson, 김태규 역,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335.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 세상을 사용하지만, 악인들은 반대로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⁴⁵⁾

이것은 사랑의 위계질서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 ‘라이프 스타일’에 연관된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삶의 방식(modus vivendi)을 말한다.⁴⁶⁾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삶을 길(via)로, 인간을 그 길을 가는 자(viatores)로 묘사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향을 향한 여행길에 오른 자로 비유된다.⁴⁷⁾ 이러한 맥락에서, 『고백록』은 삶의 필요성과 삶을 얻기 위한 여정을 말한 것으로,⁴⁸⁾ 『신국론』은 삶의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도록 이끌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 ‘순례자’ 혹은 ‘이방인’이다. 나그네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속하는 것으로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여 그 뜻이 성숙되어 온 용어라 할 수 있다.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하던 유대인들의 신분 또한 현실적으로 나그네였다.⁴⁹⁾ 거주민들 혹은 남아있는 자들에 비해 토지를 비롯한 권리가 없던 나그네였던 셈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포로기 이후에 나그네 개념은 급격한 의미상의 변화를 겪어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정체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듯싶다.

신약에서 나그네를 언급하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벧전2:11) 정체의식을 말했던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고, 아우구스티

45) *De civitate Dei.*, XV.7.

46) Étienne H. Gilson, 김태규 역,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344.

47) Lee C. Barrett, *Eros and Self-emptying: The Intersections of Augustine and Kierkegaard*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3), 115.

48) *Confessiones*, I.1.1.

49) 왕대일, ‘나그네(게르)-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113집 (2001), 115.

누스가 의지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엡4:24)고 요청한다. 이러한 뜻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광야의 천막살이로 인식한 이유와 명분은 충분히 보인다. 아렌트는 이 부분에 냉소적이었지만,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현은 중요한 정체의식의 근거였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인식한 셈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향한 신약의 관심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통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지상의 도성을 지내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로 확대적용된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하늘의 시민권을 저 세상적인 것이 되게 만드는 현실도피적인 지향성을 풀어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책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저 세상적이 되는 것’에 관한 책이다.⁵⁰⁾ 일관되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순례자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순례자 도성의 시민들은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닌 자들이라는 점에서, 순례자 혹은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초연하는 변증법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여 칼뱅이 사용한 ‘세계내적 금욕주의’(this worldly asceticism)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⁵¹⁾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실도피적 관점’에서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례자 신학’(theologia viatorum)으로 읽어내는 노력이 더 적합할 듯싶다. 현실도피적 무세계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평생을 통해 한 길을 가는 여정에 오른 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⁵²⁾

50) Peter Brown, 정기문 역, 『아우구스티누스』, 460.

51) 김영한, ‘성 어거스틴의 영성’, 『기독교철학』제11집 (2010), 31.

52) Eugene H. Peterson, 김유리 역, 『한 길 가는 순례자』(서울: IVP, 2000), 17.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순례자 개념을 윤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우어워스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낯선 혹은 다른’(foreign or alien) 근거들을 가지도록 요청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⁵³⁾ 하우어워스의 용어, ‘Resident Aliens’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거주민이라고 옮겨지기는 하지만, 적극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로서 순례자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옮길 수 있겠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며 삶의 방식에 대한 규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정체성’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로마의 시민으로 섞여 살면서 다른 동료들이 보여주는 성찰 없음의 습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가 더 중요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교만과 지배욕에 휩쓸리는 로마의 모습을 추켜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우려 했을 듯싶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순례자들은 ‘자신을 미워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하여 세상을 사용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3) ‘천막살이’, 무세계성일까?

남은 문제는 이것이다. ‘천막살이, 그것은 무세계성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 즉 두 도성의 병치를 통한 대조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일부 측면들에 대해 혹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에 관한 이해가 그의 후대 학자들의

53)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18.

것인 듯 왜곡되어서는 곤란하다. 요컨대,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혹은 칼뱅, 본회퍼, 하비 콕스 혹은 몰트만 각각이 생각하는 내용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⁵⁴⁾

아렌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병행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세계성’의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한 것은 나름 의의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내적 성찰에 자폐되어 내면성을 사사회화할 것이 아니라, ‘다시 밖으로 나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정의, 평화, 그리고 공공성에 관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싶다.

이 부분에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를 참고하면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읽기를 보완할 수 있을 듯싶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분하고 사회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니버의 사회윤리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은 참고할 요소이다.⁵⁵⁾ 사실, 지상의 도성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냉소적 관점은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와 가깝다.⁵⁶⁾ 개인과 국가는 정의보다 자기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가 무세계성을 지향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이 상당부분 가능하리라 기대된다.⁵⁷⁾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현실정치에 무관심했거나 ‘저 세상’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보자. 우선, 『신국론』의 집필동

54) Johannes van Oort, *Jerusalem and Babylon*, 153.

55)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2008), 99~121

56) Eugene Teselle, *Augustin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6), 64.

57)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 (2014), 7~37.

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국론』은 충분히 계획하여 집필되었다. 로마의 약탈이 없었다라든가 이미 집필계획 속에 있었으며, 로마가 약탈당한 사건을 계기로 특정한 독자층을 확보한 것이라 하겠다.⁵⁸⁾ 첫 부분에 수신자로 언급된 마르켈리누스(Flavius Marcellinus)는 당시의 도나투스 문제를 해결하도록 임명을 받아 카르타고에 도착한 황제의 전권대사로서, 사회적 혼란과 종교적 혼란을 겪는 로마의 시대상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반영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다.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전권대사를 파견할 정도로 기독교화된 시대였고 정치적 관심거리가 되는 때였다.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목회의 분주함과 시대적 격동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국론』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사회에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평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가 남(南)누미디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에 겪었던 안전에 대한 절박한 체험은 유목민들의 약탈로부터 보호해줄 공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피력한 동기였다. 지상의 도성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민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렌트의 주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가 이 세상을 광야의 천막 살이 짚으로 격하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는 현실에 대한 긍정으로서의 ‘세계사랑’을 유보한 것이라 보는 것이 옳겠다.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아렌트가 말하는 ‘세계사랑’과는 뜻이 다른 ‘세상사랑’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⁵⁹⁾

58) Peter Brown, 정기문 역, 『아우구스티누스』, 443.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나그네, 순례자, 그리고 아렌트가 특히 비판했던 ‘광야의 천막살이’는 무세계성의 상징이라기보다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지상의 도성에서 지내는 동안에 구현해야 할 과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을 준다. 이를테면,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에 절제와 청빈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줄 자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에게 필요한 윤리적 과제가 아닐까? 절제와 청빈을 삶의 예술(*ars vivendi*) 혹은 삶의 양식(*modus vivendi*)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⁶⁰⁾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행복을 말하고知足(知足)하는 마음을 가지며 절제와 청빈을 실천하는 것을 만드시 시대착오적이거나 현실도피적인 성향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가 지닌 과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해석에 공공신학적 관심과 교회윤리의 실천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와의 현대적 대화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현대사회의 구조와 맥락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과 표현들을 끼워 맞추려하기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관심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전으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통찰을 바탕으로 기독교사

59) ‘세상’과 ‘세계’라는 표현 사이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듯싶다. 필자가 보기에, 아렌트의 관점을 말할 때는 ‘세계’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세상’이 적합하겠다.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아렌트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기를 권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는 셈이다.

60) 예를 들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소확행’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절제와 청빈의 삶을 통해 탐욕을 이겨낼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삶의 예술을 보여줄 수 있을 듯싶다. 이에 관해서는 문시영, ‘소확행, 어쩌다 그리스도인을 일깨우다’, 『목회와 신학』 제344호 (2018.2), ‘미니멀 라이프를 통한 소확행, 절제와 청빈으로 리드하라’, 『교회성장』 제301호 (2018.7)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회윤리의 현대적 모색으로 확장하고 응용해야 한다.

III. 나가는 말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 독법에서 제기된 사랑 개념의 한계와 무세계성의 비판을 촉매제로 삼아 진행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에 대한 성찰에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는 『고백록』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민권’의 추구가 『신국론』에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내적 성찰에 기초한 사회윤리’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 (2) 『신국론』에 나타난 사회윤리는 순례자의 정체성 인식, ‘화려한 악덕’의 극복, 그리고 제국 속 천국 살이를 과제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고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아렌트의 비판적 관점까지 포함하여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 그리고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주의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법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특히 내적 성찰을 기초로 하는 사회윤리에 방점을 찍었다. 나아가, 내면성에 대한 관심이 ‘사사화’되거나 내면성에 ‘자폐’되지 않도록 역사적 현실에 다시 나가서 사회윤리를 실천하는 관심으로 이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은 과제는 탐욕의 시대에 내적 성찰을 통한 사회윤리 실천을 위해 절제와 청빈에 관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Arendt, Hannah, eds. by Joanna Vecchiarelli and Judith C. Stark, 서유경 역, 『사랑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서울: 텍스트, 2015.
- Barrett, Lee C., *Eros and Self-emptying: The Intersections of Augustine and Kierkegaar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3.
- Brown, Peter, 정기문 역,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새물결, 2012.
- Cary, Philip, *Inner Grace: Augustine in the traditions of Plato and Pau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Gill, Robi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Gilson, Étienne, 김태규 역,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 Harding, Brian, *Augustine and Roman Virtue*,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8.
- Hauerwas, Stanley, and Willimon, William, *Resident Alien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 Hauerwas, Stanley, Burrell, David, & Bondi, Richard, eds.,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to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 Herd, Jennifer A.,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Hollingworth, Miles, *The Pilgrim City: St. Augustine of Hippo and his Innovation in Political Thought*, T&T Clark International, 2010.
- O'Donnell, James J., *Augustine: Confessio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TeSelle, Eugene, *Augustine the Theologian*,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70.
- Teselle, Eugene, *Augustin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6.
- Van Oort, Johannes, *Jerusalem and Babylon: A Study of Augustine's City of*

God and the Source of his Doctrine of the Two Cities, Leidne · Boston:
Brill Publishing, 2013.

Walsh, Brian, and Keesmaat, Sylvia, 홍병룡 역, 『제국과 천국』, 서울: IVP, 2016.

Wetzel, James, ed. *Augustine's City of God: A Cri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가브리엘레 페를리시/이건 역, “아우구스티노의 내면성 체험: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오라,” 『신학전망』 제161집 (2008).

김영한, ‘성 어거스틴의 영성’, 『기독교철학』 제11집 (2010).

김정숙, ‘기독교 신학적 사유를 통한 한나 아렌트의 세계 사랑의 의미: 성 아우구스
티누스의 사랑의 개념과 세계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제175집 (2016).

문시영, ‘고백록 10권의 시점에서 본 탐욕과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34집
(2016).

_____.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2008).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 (2014).

왕대일, ‘나그네(게르)-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113집 (2001).

차정식, ‘속사람의 신학적 인간학과 대안적 인성 계발’, 『신약논단』 제18권 1호
(2011).

논문투고일: 2018년 6월 21일

심사개시일: 2018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11일

• 국 문 초 록 •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에 대해서는 니버와 하우어워스를 비롯한 여러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내적 성찰'에 집중하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 비판적 읽기를 통해 사랑 개념의 한계를 주장했지만, 역설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해석의 촉매제가 된다. 사랑 개념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성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두 사랑이 두 도성을 이루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내적 성찰의 확대적용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의 특징은 '내적 성찰에 기초한 사회윤리'이다. 예를 들어, 『고백록』의 내적 성찰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민권'의 추구는 『신국론』에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는 순례자의 정체성 인식, '화려한 악덕'의 극복, 그리고 제국 속 천국살이 실천의 과제를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성찰에 기초한 사회윤리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탐욕의 시대에 청빈과 절제의 대안을 실천하도록 독려한다.

주제어: 사회윤리, 내적 성찰, 내면성, 『신국론』, 아우구스티누스
